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1 출장 개요

☐ **출장목적**

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동아시아 인구, 가족, 청년문화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및 향후 협력 방안 모색

☐ **과제명**

일과 돌봄의 성평등과 출산의 관계

☐ **출장기간**

2026.08.10.(월)~2026.08.14.(금)

☐ **출장국가(도시)**

중국(베이징)

☐ **출장자**

최선영 연구위원

☐ **일정요약**

일자	국가(도시)	방문기관	면담자	주요 활동상황
08.10	중국(베이징)	북경대학	Misae SASANO	현지 도착 및 한중일세미나 준비
08.11	중국(베이징)	북경대학	Xie YU, Hao DONG, Shaoring WANG, Misae SASANO, 윤종석	한중일 인구가족변화 세미나 (주요일정①)
08.12	중국(베이징)	북경대학 인구연구소	Chen GONG, Qing HAN Misae SASANO 윤종석	인구연구소의 주요 활동과 협력방안 (주요일정②)
08.12	중국(베이징)	칭화대학	Ting LI, Misae SASANO 윤종석	중국 출산율 변동 및 동아시아 가족 변화의 분석틀과 이론적 쟁점 논의 (주요일정③)
08.13	중국(베이징)	(개별 면담)	답표	중국 청년 문화 변화와 쟁점(주요일정④)
08.14	한국(인천)			한국 도착

2 출장 주요내용

①	
일 시	08.11. 15:00~17:30
장 소	중국(북경대학)
참석자	Xie YU(북경대), Hao DONG(북경대), Shaorin WANG(중국사회과학원), Misae SASANO(일본 이바라키대학교, 북경대 방문), 윤종석(서울시립대), 최선영
☐ 한중일의 출산·가족 변화와 비교 연구 쟁점 ○ 최근 중국의 출산 감소를 한국·일본의 변화와 비교하고, 성평등 및 일·가정양립과 결혼·출산의 관계를 논의함. - 출산 감소를 기혼 부부의 추가 출산 문제와 청년층의 결혼·가족 형성 문제로 구분하고, 노동시장·주거·가족관계의 변화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함. ☐ 중국의 출산 감소 배경과 출산정책의 계층별 효과 ○ 장기간의 가족계획 정책이 소자녀 가족에 대한 선호와 자녀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양육관을 형성하였다는 설명이 제시됨. - 출산 제한이 완화되어도 청년층의 자녀 수에 대한 기대와 양육 방식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으며, 고용 불안과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이 장기적인 양육 책임을 부담하는 데 장애가 됨을 논의함. ○ 둘째 자녀 허용 정책의 평가 연구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집단에서 정책에 대한 출산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소개됨. - 정책 효과의 존재와 전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구분하고, 출산 의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육·교육비와 가구의 자원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확인함. ☐ 결혼 진입 장벽과 가족 내 성별분업 ○ 혼인과 출산의 연계가 강한 동아시아에서는 결혼 감소와 지연이 출산 감소로 연결되므로, 혼인 이후 지원과 함께 결혼 진입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 - 주거비와 결혼 비용, 불안정 고용 및 장시간 노동이 관계 형성과 가족생활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제시됨. ○ 젊은 세대의 성평등 태도 변화에 비해 실제 가사·양육 부담의 변화는 제한적이며, 여성에게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양상이 논의됨. - 평등한 부담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결혼·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태도 변화가 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보육과 돌봄 책임 부담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. ☐ 출산 이후 여성 고용과 조부모 돌봄의 역할 ○ 중국 여성의 높은 취업 수준을 해석할 때 출산 이후의 취업 중단뿐 아니라 시간제·유연 고용 및 자영업으로의 이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. - 취업 여부만으로 일·가정양립의 실태를 판단하기 어려우며, 근로시간·고용의 질·경력 변화까지 확인해야 함을 논의함.	

○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동거 및 조부모의 양육 지원은 출산 후 여성의 취업 지속을 돕는 것으로 소개됨.

- 다만 돌봄이 주로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서 분담되는 경우, 세대 간 협력이 부부 간 성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세대와 젠더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음.

□ 국가별 차이와 연구·정책적 함의

○ 일본 사례에서는 취업 기회와 별개로 임금 정책, 생활비 부담 및 낮은 미래 전망이 청년층의 가족 형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됨.

- 한국의 최근 출산율 변화와 정책의 인과관계는 별도의 실증 검토가 필요하며, 단기적인 출산율 등락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유함.

○ 북유럽의 부부 중심 모형을 동아시아에 적용할 때 조부모 지원과 확대가족 관계, 중국 내부의 지역·계층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.

- 향후 부부의 유급·무급 노동과 세대 간 돌봄을 함께 분석하고, 혼인 진입과 혼인 후 출산을 구분하여 성평등 및 일·가정양립 정책의 작동 조건을 검토하는 데 참고함.

②	
일 시	08.12. 09:00~11:00
장 소	중국(북경대학 인구연구소)
참석자	Chen GONG(북경대), Qing Han(북경대), Misae SASANO(일본 이바라키대학교, 북경대 방문), 윤종석(서울시립대), 최선영

□ 북경대 인구연구소(PKU-IPR) 소개

○ 기관의 연혁과 주요 활동

- 1984년 설립된 교육, 훈련, 연구 기관임.
- 경제학, 인구학 및 사회복지학 석사 및 박사과정 운영
-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다학제적 연구 지향.
- 출산정책, 노인, 장애인 정책 등에서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함.

○ 자료생산

- CFPS(China Family Panel Studies) 등
- Population & Development Open Data Space
- Journal “Population & Development”

□ 중국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

○ 인구학적 도전

- 고령화 속도 빠르고 가구규모 축소(2020, 2.62명)

○ 제도 개혁

- Central Social Work Department(CSWD) 설립. 효율적 서비스 전달 목적으로 사회복지 핵심분야를 직접 책임지는 기관

○ 국가 AI전략

- 사회적 거버넌스와 공공서비스에 AI 기술 활용
-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수요의 미스매치에 대응하고, 서비스 전달 속도를 높이려 함.

☐ 인구연구소(PKU-IPR)의 프로젝트와 미래 협력 ○ 인구고령화: 타임뱅크, 커뮤니티 건강 증진 및 가정기반 돌봄 - Yanyuan Street community 연구-실천 - 베이징 내 커뮤니티 기반 AI 기술과 의료돌봄서비스 공급 연구 및 실천활동 ○ AI 활용 연계강화 - 사회적 거버넌스와 인구학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 -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지원 시스템 창출 ○ 사회복지 인력양성 체계구축 협력 - 공동 훈련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개발 자료 제공: Time Utilization in the Longevity Era: Addressing Population Aging Proactively Innovation Scheme (연구팀에서 생산한 최근 5년간의 논문 묶음)	
③	
일 시	08.12. 14:00~17:30
장 소	중국(칭화대학)
참석자	Ting LI(칭화대), Misae SASANO(일본 이바라키대학교, 북경대 방문), 윤종석(서울시립대), 최선영
☐ 출산 감소를 설명하는 분석 틀과 핵심 질문 ○ 리팅 교수와 중국 및 동아시아의 출산 감소를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연결하여 해석하고, 기존 설명의 범위와 한계를 논의함. - 혼인 감소·출산 의향 저하·출산 연기의 인구학적 설명, 비용과 기회비용의 경제학적 설명, 문화·교육·노동시장 변화의 제도적 설명을 구분하여 검토함. - 이러한 설명을 넘어 개인의 가치 우선순위가 왜 달라지고, 안정적인 고용과 경제적 기반이 왜 결혼·출산의 전제가 되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시됨. ☐ 가족의 생존 공동체적 성격과 사회적 재생산의 변화 ○ 리팅 교수는 페이샤오통의 출산제도 논의와 헨리 메인의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전환을 참조하여 가족을 통한 사회적 지위·역할의 계승 방식을 설명함. -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, 가족은 다음 세대의 출산을 통해 존속하는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해석을 제시함. - 가족 중심의 생존 방식과 성별 협력 체계가 출산을 지탱하였으나, 교육·취업을 통한 개인의 사회 진입과 여성의 지위 변화로 기존의 상호의존 구조가 약화되었다고 설명함. ○ 이에 대해 산업화 이후에도 근대적 핵가족과 성별분업이 양육 책임을 조직해 왔다는 점을 질문하고, 전통사회와 현재 사이의 역사적 경로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논의함. ☐ 디지털화와 가족 기능 및 관계 형성의 변화 ○ 리팅 교수는 디지털화가 기존 가족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가설을 제시함. - 소셜미디어는 출산의 신체적·시간적 부담과 경력 손실에 관한 개별 경험을 공유하게	

하여, 결혼·출산에 대한 대안적 인식과 선택의 정당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함.

- 배달·가사서비스와 개인화된 정보·서비스는 가족을 거치지 않고 생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, 가족의 일부 기능을 대체한다는 관점을 제시함.
- 개인을 중심으로 자원이 조직되는 환경에서 관계 유지를 위한 타협과 조정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함.
- 다만 이를 결혼 욕구 자체의 소멸로 일반화하지 않고, 정서적으로 적합한 상대를 만났을 때 결혼하려는 선택성과 배우자에 대한 기대 수준의 변화로 구분하여 검토함.

□ 결혼·출산의 새로운 의미와 성평등 정책의 방향

- 가족의 실용적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친밀성, 자녀와의 동반 성장 및 삶의 경험 등 새로운 가치가 형성될 가능성을 논의함.
- 이러한 가치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, 부모됨을 경험하기 전에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출산 장려만으로 공통의 출산 동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됨.
- 성평등과 돌봄 부담 완화의 가치를 출산율 제고 효과에만 종속시키지 않고,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 차원에서 평가할 필요성을 논의함.
- 국가·기업·가족 및 남녀 사이의 비용과 책임 분담을 개선하되, 성평등의 규범적 가치와 출산행동에 대한 실증적 효과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.

□ 정책 자원 배분과 후속 연구의 시사점

- 중국의 출산 지원은 고령자 보장, 기술·산업 경쟁 등 여러 국가 목표와 함께 자원이 배분되는 문제라는 해석이 제시됨.
- 인구 변화의 장기성과 당면한 정책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, 해당 견해는 중국 학계 전체의 합의가 아닌 리팅 교수의 관점임을 확인함.
- 일본의 고령자 돌봄과 고립 문제를 비교하며 가족 지원, 사회보장 및 지역사회 관계의 역할을 논의함.
- 향후 동아시아 비교에서는 국가별 역사적 경로, 성별·세대별 책임 분담, 디지털화에 따른 가족 기능 변화를 함께 검토하고, 자료와 연구 구상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함.

④	
일 시	08.13 10:00~13:00
장 소	내셔널라이브러리 호텔
참석자	담표(작가), 윤종석(서울시립대), 최선영

□ 동아시아 가족·젠더 변화와 청년 문화 비교

- 한국·중국·일본의 결혼·출산 감소와 가족관계 변화를 비교하고, 청년 여성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연구 방향을 논의함.
- 세 국가에서 변화가 나타난 시기와 속도가 다르며, 중국 내부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점이 제기됨.
- 고용률과 출산율 등 거시적 지표와 함께 여성에게 부과되는 역할 기대, 일상적 갈등 및 미래에 대한 인식을 검토할 필요성을 논의함.

□ 한국 여성문학의 중국 내 수용과 공감의 배경

- 김애란·최은영 등 한국 여성 작가의 작품이 중국의 젊은 여성 독자에게 공감을 얻으며 ‘한녀 문학’으로 불리는 현상을 논의함.
- 도시생활의 고립감, 일상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감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서사가 독자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계기가 된다는 해석이 제시됨.
- 작품의 수용을 이해할 때 문학적 특성뿐 아니라 독자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과 사회적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- 독서는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불안과 욕구를 확인하고,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과정으로 논의됨.
- 문학의 생산과 수용을 통해 거시적 통계로 포착하기 어려운 젠더 경험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가능성을 검토함.

□ 디지털 기술과 관계의 재구성 및 세대 간 지원

-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인 중심으로 관계와 생활이 조직되는 ‘자기사회’ 개념을 참조하여 가족·친족관계의 변화를 논의함.
- 대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조정 비용과 불확실성을 부담스럽게 느끼고, 디지털 매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에 대한 해석이 제시됨.
- 중국 청년층의 친족관계 단절 현상을 관계의 의무와 부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연결하여 검토함.
- 부모 세대의 자원과 자녀 세대의 지원 기대를 둘러싼 한중 간 공통점과 차이를 논의함.
- 중국에서는 부모 세대가 개혁개방기의 경제적 기회를 누렸다는 인식과 자원 이전 요구가 연결되는 사례가 소개됨.
- 한국에서는 부모와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는 양상이 논의되어, 정서적 자율성과 경제적 의존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.

□ 일상적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과 트라우마 서사

-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가정·학교·직장의 일상적 권력관계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현상을 논의함.
- 청년층이 자신의 고통을 부모·교사·상사와의 관계 및 사회구조에 연결하여 설명하는 서사를 통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해석이 제시됨.
- 이러한 인식은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불평등과 피해를 가시화할 수 있으나, 모든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로 환원할 경우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.
-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관계 피로·고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검토할 필요성을 논의함.

□ 농촌의 가족생활과 돌봄 및 경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

- 중국 농촌 여성의 이혼 과정에서 호구와 토지·주거 권리가 얽혀 실질적인 선택을 제약하는 문제가 사례로 소개됨.
- 산동성 일부 마을에서 노인의 토지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사례를 통해 지역 자원에 기반한 돌봄의 가능성을 논의함.

- 교육·생활 경쟁에서 벗어나 허강 등 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사례를 검토함.
- 비용 부담의 완화가 지역사회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, 이주 이후의 고립과 생활 기반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.
- 연구 시사점과 후속 교류
 - 동아시아의 가족·젠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인구통계 분석과 청년층의 일상 경험, 문학 수용 및 관계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연결할 필요성을 논의함.
 - 각국의 역사적 경로와 제도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공통 현상과 국가·지역·계층별 차이를 구분하는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함.
 - 이메일을 통한 자료 공유와 학술 교류를 이어가고, 후속 세미나·공동 연구 가능성을 논의함.

3 출장 증빙 회의 현장 사진, 면담자 명함 등

①



②



③



④

